교회목표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2011년도 표어
다음세대와 함께 가는 교회(신6:4-9,마28:18-20)
행동지침
1. 온 가족 한 교회 섬기기 운동
2. 다음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운동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 운동

†발 행 · 발 행 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www. seoulchurch.or.kr

수요 강단 - 룻기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된 인생
(룻기 4:13-22)

박노철 목사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인자가 되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메던 모세는 그의 나의 80세,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고 그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뿐 아니라 다니엘, 욥 등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므로 역전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1. 역전의 하나님

나오미의 가정은 흉년을 맞아 모압지방으로 갔지만 그곳에서 더욱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남편과 삶의 버팀목이었던 두 아들이 모두 죽어버립니다. 인생의 쓴 뿌리밖에는 남은 것이 없는 그녀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극을 맞은 여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결혼하여 나오미와 룻에게 기업을 물려 줬을 뿐만 아니라 그들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납니다(14-15절). 그 아이의 이름이 오벳.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이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을 따라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시작하셨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시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이제는 정말 끝난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통로로 쓰임 받은 자들은 태생부터가 달랐던 사람들이 아니라 전혀 볼품없었던, 허물 많고 죄 많은 바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포기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흑인으로 미국의 44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버락 오바마는 케냐인 아버지와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이복 형제들 사이에서 극심한 정체성 갈등을 겪으면서 마약까지 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시카고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영적 멘토인 제레미아 라이트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이 역전의 하나님인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2004년 3월 민주당 상원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우리는 돈도 없습니다. 우리는 선거를 치를 충분한 조직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버락 오바마라는 우스꽝스런 이름을 가진 남부 출신 말라깽이 사나이가 이길 것이라고 정말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내가 이곳에 서 있는 것이야 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누구라도 인생에 역전을 만들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Yes, we can. Yes, we can.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라는 연설을 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그 분만이 하실 수 있는 역전의 드라마를 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전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향한 부흥의 열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포하십시오. 다 버려진 인생인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다윗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을 믿으시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A Life That Changed a Sigh into Praise
(Ruth 4:13-22)

The God of the Bible that we believe in is a God of the come-from-behind victory. When Moses became a murderer and left Egypt to wander the wildness for forty years, he thought that everything was finished at the age of eighty. But God appeared to him in the midst of the burning bush at Sinai and used him as a great leader in the Exodus. Because of his brothers' jealousy, Joseph was sold into Egypt, but there he became its Prime Minister. Not only that, but Daniel, Job, and many others in the Bible lived come-from-behind lives by God's intervention.

1. The God of the come-from-behind victory

Although Naomi's family left to go to Moab because of a famine, she suffered even more difficulty while she was there. She lost her husband and her two sons. There was nothing left for her, except for the bitterness of life. However, God started to intervene in the midst of her tragic life.

Later, Ruth met Boaz and got married. He became the kinsman-redeemer to Naomi and Ruth. Boaz and Ruth gave birth to a son (vv, 14-15), whose name was Obed. Obed became the father of Jesse, who became the father of David. Jesus Christ came into this world through this bloodline. When they thought that everything had ended, God was just beginning. What is more, God sent his one and only Son, who became the passage through which we receive blessing.

What situation are you in now? Do you think that everything has ended for you? Never give up! God's only Son, who was innocent came to become a passage of blessing. Others also functioned as passages of blessing. They were no different from you or me. Even from birth, they were very undignified and sinful people with plenty of faults like you and me. Therefore, whoever believes in God can never give up. Our God is the One who brings the come-from-behind victory. He is the God of the resurrection who brought our Lord Jesus Christ from death to life.

Barack Obama, a black man, was elected to be the 44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e was born to a black father from Kenya and a white mother from America. He faced the conflict of extreme polarity as he wrestled with his identity between his half brothers. He struggled as a drug user. Such a man as this started a new life in Chicago and met his spiritual mentor, Pastor Jeremiah Wright. Finally, he met God and believed in Him as a come-from-behind God. After he was elected as a senator from the Democratic Party on March 2004, he said, "We had no money. We didn't even have an organization to hold an election." Nobody really thought that Barack Obama, a featherweight from the south with a ridiculous name, was going to win the presidential election. He delivered his famous speech, "We stand here now. The fact that we stand here is a witness that anyone can have a come-from-behind life in the midst of God's grace, Yes we can! Yes we can! We can do it!"

The God of the Bible can write a come-from-behind drama in your life. This is something that can be done only by Him.

My beloved Christians!

Look at the God of the come-from-behind victory! Don't ever give up! Declare that you will never give up your desire for revival in your family, workplace, and church! Just as the world of David and our Lord Jesus Christ was made possible through the hopeless lives of Naomi and Ruth, we must firmly believe that God's glory will come and God's kingdom will be extended. I sincerely pray that all of you will be God's people who win the victor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순례자 지령 1000호를 축하하며

보리떡 한 덩어리처럼

순례자 지령1000호를 지속적으로 발간케 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이 일을 섬긴 분들과 서울교회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순례자는 일간지도 아닌 겨우 네 쪽 짜리 주간지이지만 그 내용은 천국이야기로 채워져 있고, 현재와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고, 교회내의 소식 뿐만 아니라 국가와 세계를 품고 이끄는 매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기드온은 자신을 보리떡으로 비유했으나 그 보리떡이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가 쳐 무너뜨리고 엎드려지게 하는 환상을 보고 오히려 감격하며 승전을 기원했습니다.(삿 7:13, 14) 세상 사람들에게 화려하게 보이지 않는 한 덩이 보리떡일지 모르나 성도들에게 그리고 세상으로 굴러 들어가는 순례자는 자신과 교회와 사회를 변혁시키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1000호를 발행했으니 대견스럽기도 하고 고마운 마음 그지 없으나 마냥 자랑만하고 축하만 받기보다 지나온 날들을 겸손히 한 페이지씩 넘겨보면서 앞날을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왕 인원과 장비까지 동원해서 사냥하러 산까지 갔다면 노루나 사슴을 잡을 것이지 겨우 메추라기나 벼룩 한 마리 잡았다면 훌륭한 사냥꾼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삼상26:20) 나라를 지키고 부강케 함으로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살게 하고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으시도록 세움 받았던 사울이 나라일은 외면하고 자기 왕권 쟁취만 위해 다윗 잡는 일에만 몰두한 것은 하나님을 모독한 일이요, 하나님 앞에 협조적 방해꾼 노릇을 한 대표적 사례가 됩니다.

순례자는 바른 신학, 바른 생활, 바른 예배 모범을 보이는 서울교회를 반사하는 투명한 거울이 되어 보리떡 한 덩어리처럼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매체가 되기를...

순례자는 서울교회 창립과 동시에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교회를 섬기려고 서울교회가 세워졌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 선포와 성도의 바른 삶의 모범을 제시하기 위하여 순례자가 반포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순례자는 그날 이후 인생 순례의 길을 걷는 이들의 길동무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영혼의 고향인 천국의 소식을 읽기도 하고,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사랑의 손길을 감지하기도 하며, 목마른 영혼을 시원케 하는 생수를 마실 수 있었고, 세상을 향해 외치는 광야의 소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순례자를 보면 서울교회가 보입니다. 반듯한 거울이라도 내 얼굴에 티나 혹이 있으면 그렇게 보이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것이 보기 싫다고 오목렌즈나 볼록렌즈 거울을 보면 그 모습은 더욱 흉측 하게 보일 뿐입니다. 내 사랑 서울교회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지를 기대하는 이들에게 순례자는 그들의 바람을 저버리지 말고 독자의 가슴을 뭉클케 할 감동어린 기사로 계속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순례자는 바른 신학, 바른 생활, 바른 예배 모범을 보이는 서울교회를 반사하는 투명한 거울이 되어 보리떡 한 덩어리처럼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매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Soli Deo Gloria!

원로목사 이종윤

순례자 지령 1000호를 축하하며

길이길이 그 소명을 다하기를...

김광신 장로
(1992, 1999, 2000 편집부장)

순례자 1,000호를 축하합니다. 순례자는 읽는 분들이 있었기에 순례자입니다.

어떤 권사님은 노안이시면서 한자 한자 손으로 짚어가시면서 두세 번씩 정독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성경보다는 못해도 읽을거리는 충분하고 다양하여 은혜가 되기에 주일에도 기다려진다고 하십니다.

궁금하여 읽고, 기다려져서 읽고, 읽고 싶어서 읽는 순례자는 이번 주일에도 우리의 필독도서 1호입니다.

노승성 장로
(2001, 2002, 2003 편집부장)

순례자 지령 1000호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순례자가 있기까지 어떤 어려움과 남모르는 헌신이 있었는지를 잘 알고 있기에 저의 축하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감사의 다른 표현입니다.

순례자 편집위원들은 이 20년간 금요일 오후 다른 약속을 할 수 없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5시부터 장시간에 걸쳐 편집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순례자 지령1호부터 1000호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편집회의에서 완성된 초안을 당회장 목사님께서 검토하시고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면 또 토요일은 인쇄가 제대로 되는지를 확인하느라 온종일 시간을 바칩니다. 이런 헌신과 노력에도 이들의 얼굴은 늘 뒤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오른손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라는 주님의 명령을 이들만큼 잘 실천하는 제자들도 참 보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순례자 기자들로부터 '파란 쪽지'가 들어있는 편지봉투를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바로 원고청탁서입니다. 이 '파란 쪽지'를 받으실 분들은 그냥 무작위로 선정되지 않습니다. 주일 편집회의를 통해 가장 적격인 성도님을 선발하여 전달해 드리는 것이니 전달 받으신 성도님들께서는 큰 영광으로 생각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원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순례자는 바로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과 은혜가 글로 모여 이루어지는 우리들의 신앙 기록입니다.

다시 한 번 순례자 지령 1000호를 축하드리며, 앞장서시는 하인선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편집위원들의 섬김에 마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정병무 장로 (2007,2008 편집부장)

지혜의 왕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여호와께 드려 그가 구하는 지혜와 총명을 허락받고,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까지 받아 누렸습니다.

우리 서울교회가 설립되던 첫 주부터 단 한 주도 빠짐없이 면면히 이어온 "순례자"가 드디어 일천 번째 호를 맞게 되었으니, 감개무량함을 감출 길 없어서, 이에 감히 솔로몬왕의 일천번제와 비견해봄은 자화자찬이 될까요?

20년이라는 서울교회 역사가 이곳에 고스란히 담겨 있고, 구비 구비 흘러온 그 역사의 파노라마가 수놓아져 있는 순례자는 사초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음을 자부합니다.

이 모든 족적의 뒤에는 이종윤 원로목사님의 철저한 하나님 목회 철학과 기도가 그 씨앗이 되었고, 온 성도들의 아낌없는 사랑과 도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성년의 때를 맞은 서울교회에 박노철 목사님을 여호수아와 같이 보내주시어 계대를 이어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정체성을 잘 이어받아 제2의 도약과 부흥으로의 불길을 지펴가고 있음을 보여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코람데오의 서울교회와 생명을 같이하고 함께 자라나, 길이길이 그 소명을 다하는 "순례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순례자 지령 1000호 기획

1000호라는 금자탑을 쌓는 이 시점에서

순례자는 지령1000호를 맞아 박노철 목사님과 대담을 가지며 목사님의 목회 비전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들었다. 다음은 그 요약이다.

#1. 교회갱신과 바른신학을 위한 말씀중심의 목회정책 아래 20년을 달려온 우리 교회는나름의 확고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역사를 전공하신 목사님으로서 그동안 서울교회의 모습을 보고 느끼신 점을 말씀해주십시오.

이종윤 목사님께서 지난 20년 동안 최상의 개혁주의 신학으로 성도님들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시고 순수한 말씀의 씨앗들을 심어놓으시어 교회는 질서 가운데 아름답게 성장했습니다. 그 후임으로 제가 서울교회에 왔다는 것 자체가 제게는 넘치는 영광이요 감사입니다.

오기 전 <서울교회 10년사>를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많은 분들의 이야기에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참 행복한 목회자구나!"하며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1세대들의 전설과 같은 헌신을 다음 세대들이 바통을 이어받아 서울교회를 통해 '헌신의 전설'을 계속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 "변화하는 세대에 변화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 어떻게 전할 것인지 치열한 고민과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2. 이종윤 목사님의 목회비전을 계승 발전시키기에 어깨가 무거우실 텐데 어떻게 임하고 계신지요?

이종윤 목사님은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닌 교회를 섬기는 교회'를 꿈꾸셨습니다. 그 비전을 위해 우리 교회는 개척 당시부터 킴치신학세미나와 목회자신학세미나를 시작해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역들은 이종윤 목사님이라는 강력한 리더가 계셨기 때문에 힘 있게 전진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한 가지를 기억하며 바통을 이어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일까?" 이런 고민과 기도를 통해 최선을 다해 이 목사님의 목회를 계승하겠습니다.

#3. 금요심야기도회가 뜨겁습니다. 금요심야기도회의 중요성과 취지를 말씀해주신다면?

금요심야기도회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도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금요기도회와 같은 장(場)이 우리교회와 지역에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사역이 자리를 잡아가는 데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교회 주위에 있는 교구 식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금요기도회가 궤도에 올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 올해 총회의 주제표어가 '다음세대와 함께 가는 교회'인데, 이를 위한 구체적 실천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게 있습니까?

정말 시기적절한 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교회에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지도 벌써 오래전입니다. 이러다가는 화려한 건물만 남겨놓은 채 사람들은 사라져 간 유럽 교회처럼 한국교회도 도태될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변화하는 세대에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과 복음을 어떻게 다음 세대의 눈높이에 맞춰 전할 것인가?"라고 하는 치열한 고민과 기도 속에 하나씩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교회 등록 새가족의 80%가 자녀교육 때문에 이 지역으로 이사 오신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를 교육열이 높은 대치동에 자리잡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뤄가기를 원합니다.

#5. 최근 다락방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 다락방의 부흥을 위한 요소는 무엇이라 보시는지요?

주님이 보여주신 교회의 모델과 초대교회의 모델은 분명히 두 날개, 즉 주일에 모이는 대형 그룹과 주중에 집에서 모이는 소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다락방장 부다락방장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려 419명이나 참석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결코 첫 숫가락에 배부를 수 없는 사역입니다. 한 시간이란 훈련 시간에 교재를 통한 훈련과 나눔지를 통한 훈련, 그리고 말씀과 기도 훈련을 해야 하는 촉박함 가운데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모든 교구 일꾼들이 인내하시고 훈련에 참여하시면 안개속을 더듬는 듯한 다락방 사역이 매우 뚜렷해지는 때가 오고야 말 것입니다.

#6. 올해도 할 일 많은 우리 교회는 목회자신학세미나와 킴치신학세미나, 홍해작전, 열린프로그램 등등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 온 사역들이 흔들림없이 진행될 예정인데, 이를 위해 교인들에게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서울교회의 저력은 한국교회가 모두 인정할 만한 놀라운 것입니다. 모두 다 마음과 뜻과 힘을 합하여 주님의 아름다운 일을 이뤄가기를 소원합니다. 혹시라도 제가 바통을 이어받아 가면서 긍정적인 열매들이 있다고 한다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종윤 목사님께서 뿌려놓으신 최상의 말씀의 씨앗들이 스스로 자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저는 그저 물을 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하나님과 이 목사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례자가 1000호라는 금자탑을 쌓는 이 시점에서 생각나는 사자성어는 '심기일전(心機一轉)'입니다. 다시 한 번 마음을 하나로 모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푯대를 향해 달려가는 모든 서울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리 : 김민철 집사 (편집부)

순례자 지령 1000호 기획

다음 세대와 함께 가는 순례자

지난 20년간 순례자는 우리교회의 젊은이들에게도 좋은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서울교회 젊은이들에게 순례자란 어떠한 의미인지 물어봤습니다.

순례자는 위문편지

소원섭 (청년1부)

제가 순례자를 관심 있게 읽고 은혜를 받기 시작한 것은 군대 있을 때였습니다. 군대에서는 믿고 의지할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심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편지 한통이 큰 힘이 됩니다. 군대 시절 제가 몸 담고 있던 대학부에서 매주 빠지지 않고 순례자와 주보를 보내줬습니다.

이종윤 목사님의 설교 강해와 여러 교회 소식들, 교우들이 써 놓은 글들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었고 서울교회에 가고 싶고 교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매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 제대 후 군대에서 가졌던 생각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순례자는 서울교회를 알리는 교회 소식지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순례자는 스마트 폰

권소현 (대학부)

출근하는 직장인들과 등교하는 학생들의 눈은 무엇인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마다 일간지를, 전공서적을, 혹은 스마트 폰으로 뉴스를 들여다 봅니다. 출근 시간의 지하철 풍경은 과연 치열한 무한 경쟁 속의 현대인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크리스천(Christian)으로서 주님에 관한, 주님의 일에 관한, 또는 주님의 교회에 관한 정보에는 얼마나 치열하게 접근하려고 하십니까? 순례자에는 '하나님'과 '서울교회', '형제, 자매의 나눔'이 무궁무진한 "어플(application)"이 담겨있습니다. 저에게 순례자는 "스마트폰"입니다. 주님께 더욱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이제 놓치지 마세요.

순례자는 서울교회 신분증

박재원 (청년2부)

예배가 끝나고 정신 없이 쏟아지는 사람들. 그 가운데 서계신 안내 집사님 손에 들린 순례자. 예배 후에 이어지는 봉사로 분주한 저이지만 순례자를 빠뜨릴 순 없답니다. 순례자는 제게 신분증과 같은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서울교회 성도임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는 것, 바로 순례자입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와 사랑이 어디서 비롯되었나.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세상을 살면서 흐릿해지는 사실을 저는 순례자를 통해 되새길 수 있습니다.

지금껏 그래왔듯, 먼 훗날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쓰이는 순례자 되기를, 서울교회 은혜의 장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순례자는 말씀의 보고

최근우 (대학부)

제가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 서울교회. 순례자 1000호를 맞이하여 기쁨의 감사함과 동시에 서울교회의 세월이 느껴집니다. 주일 예배 후 봉사하는 부서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순례자를 읽습니다. 순례자를 보며 한주동안에 서울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앞으로 한주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씩 읽어가다보면 어느새 제가 봉사하고 있는 7층 유아부실에 도착하곤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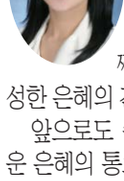
말씀과 서울교회의 안부를 가장 먼저 한눈에 볼 수 있는 순례자의 1000호를 맞이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그 분의 모습을 떠올려봅니다.

순례자는 고향의 편지

최유현 (청년1부)

유럽에서 유학 하던 시절에, 함께 할 수 없어서 마냥 그리워 하던 저에게 서울교회를 대신해준 것이 바로 순례자였습니다. 그 곳에는 목사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고, 반가운 교회 소식이 있었으며, 함께 신앙생활 했던 모든 교우들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멀리 있던 저에게 순례자는 그 자체로 서울교회였습니다. 순례자가 1000호를 맞이하면서 돌이켜보니 순례자가 아니었다면, 성도간의 소식에 어떻게 함께 기뻐하고, 슬퍼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순례자는 은혜의 통로



김진희 (청년2부)

순례자를 주일마다 꼭 즐겨 보는 이유가 있다면 첫째로는 교회의 다양한 소식과 집회들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가 나와있기 때문이며 둘째로는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들의 풍성한 은혜의 간증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순례자가 지금처럼 서울교회의 아름다운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길 바라며 서울교회의 은혜의 간증들을 읽고 보는 어느 곳에서나 저희 하나님아버지와 서울교회의 따뜻한 사랑의 향기가 전해질 수 있길 소원합니다.

정리 : 노창훈 집사(편집부)

사순절 기도

부활을 소망하며

이복규 장로 (2교구)

혹독했던 긴 겨울이 지나는가 싶더니
대지를 적시는 봄비는
생명의 태동을 알리는 하늘의 전령
겨울나무들은
따스한 햇볕을 받으며 기지개를 피다
모진 삭풍과 눈보라에도
설해로 상처 난 지체들을 감싸 안으며
뿌리를 깊이 내리고 인고의 시간을 견뎌온
겨울나무들은
온 힘을 다하여 수액을 높은 데로 올리어
잎 새를 피우고 꽃망울을 터뜨린다.
겨울나무들은
아름다운 회복의 계절입니다.

하나님아버지!
오직 주 만 바라보나이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어
믿음의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따스한 손길로
첫사랑의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손을 모아 올리는
기도의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생명력이 용솟음치는
말씀의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회복되어
우리가 서 있는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예수님의 치유하심의 은총이 있게 하옵소서.
십자가 너머의 부활을 소망하는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회자 신학세미나를 시작하며

이 세상에 경종을 울리는 목회자신학세미나

김무기 목사
(목회자신학세미나 동문회장)

한국교회갱신연구원의 목회자 신학 세미나가 벌써 20여년이 되어 39학기를 맞이했습니다. 세월의 빠름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하는군요. 그 동안 짧고도 긴 날들이었지만 한 순간에 오늘에 이른듯합니다. 그러나 오늘이 있기 까지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한국교회갱신연구원 원장 이종윤 목사님과 서울교회 교우들의 숨은 봉사로 이루어낸 결과임을 자타가 인정하는 한국교회의 자랑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리로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우리 한국교회에 한 시대에 귀하신 종 이종윤 원장님을 세우심으로 깊은 잠에 빠져있고, 지치고 쓰러져 가는 많은 한국교회의 교역자들에게 경종을 울려 일깨워 주시는 기회를 갖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한국교회갱신연구원에서 그 동안 많은 동문들을 배출하여 많게는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사명을 감당하는 동문도 있으며, 작게는 국내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일하는 동문들이 많이 계신 줄 압니다.

동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여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이루는 큰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문회에서는 20여년 만에 처음으로 청평 아가페 타운에서 지난 1월17일부터 18일(1박2일) 동안 1차 세미나를 개최하여 많은 동문들의 기도와 협력 가운데 은혜롭게 잘 마치고 돌아왔음을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세미나를 위해 주옥같은 말씀으로 준비해 주신 이종윤 원장님과 김재진 부 원장님 그리고 서울 교회 박노철 목사님과 정인교 교수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신학 세미나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서울교회 장로님들과 봉사팀 모든 분들의 이름을 거론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동문들 중 각 교회 별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세미나를 위해 헌신 봉사하신 우리 임원님들과 참여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신 모든 회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협력으로 크게 성장하는 우리 갱신연구원 동문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도와주셔서 한국의 미래를 하나님 말씀으로 열어가는 모임이 되었으면 하며 서울교회와 동문 여러분들의 섬기시는 교회 그리고 가정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만민에게 전도 – 70인 전도대

순례자와 함께 하는 전도대

박이선 권사 (9교구)

은퇴하신 이종윤 원로목사님께서 전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시어, 2003년 1월 1일 "70인전도대"를 창설하셨습니다. 찬바람이 매섭게 불던 그 해 1월, 몇명이 모여 은마아파트로 처음 전도 나갔던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70인전도대는 매주 모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울 때나 더울 때나 열심히 전도하고 있고, 지금은 약 200명 이상의 전도대원이 한 주일도 거르지 않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순례자가 어느덧 1000호를 맞이하였다니 축하드리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순례자는 70인 전도대원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도지입니다. 순례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서울교회의 아름다운 사역들과 성도들의 살아가는 이야기가 있어 그 자체만으로 훌륭한 예수님의 편지인 것입니다.

순례자를 정성껏 접어 두 손 가득 들고 교회 문을 나서면 천군만마와 함께 나가듯 전도대의 발걸음은 힘차고 당당합니다.

교회가 모일 때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격의 예배를 드리고 곧 흩어져서 지역사회로 나아가 전도하고 열방을 향하여 선교하는 일에 힘쓸 때 그 교회는 생명력 있는 살아 숨쉬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70인전도대는 앞으로도 순례자와 더불어 부지런히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종교개혁500주년기념사업회 창립되다

-대표회장에 이종윤 원로목사 취임-

마틴루터 종교개혁500주년이 2017년으로 다가온다. 여리고성보다 더 강력한 진을 세운 중세 로마 카톨릭을 넘어 성경적 기독교를 세운 종교개혁자들의 신앙과 신학을 회복하고, 한국교회 갱신과 일치를 도모하며, 한국 신학계의 진보와 보수의 양극화를 지양하고,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교회로 다시 태어나며 세계복음화의 기수가 되게 하고, 오늘날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신학에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불어 넣어 활력을 갖게 하려는 목적으로 지난 3월5일 한국기독교학술원(원장 이종윤) 초청으로 7개 기독교 신학회가 모여 종교개혁500주년기념사업회를 창립했다. 기독교(공동)학회, 복음주의신학회, 루터학회, 칼빈학회, 웨슬리학회, 개혁신학회, 장로교신학회 회장단 34명이 모였다.

이날 경건회에서 이종윤 목사는 예수님께서 회개를,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유대교를 개혁한 것을 모델로 16세기 종교개혁이 단행된 것처럼 우리도 오늘의 죽어가는 서구신학과 피지도 못하고 시드는 제3세계 신학을 잃어버린 종교개혁주의 정신으로 다시 살리자는 설교를 하였다.

향후 7년간 종교개혁과 한국교회의 갱신이라는 대주제하에 연구 발표 및 행사를 결의하고 임원과 중앙위원을 조직하고 대표회장으로 우리교회 이종윤 원로목사를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남은 임원과 중앙위원 인선을 위해 추천위원으로 이종윤 목사, 정장복 기독교학회 회장, 최갑종 복음주의신학회 회장을 위임했다. (사진 출처: 아이굿뉴스)

특 별 찬 양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가브리엘찬양대의 솔로이스트로 봉사하고 있는 김정아 성도의 찬양으로 드린다. 영국 트리니티 음대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캐나다 밴쿠버 음대와 밴쿠버 아카데미에서 오페라를 전공하였다. 캐나다에서 오페라 활동 및 오라토리오 독창자로 활동하다가 귀국하여 현재는 전문 연주가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오늘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니(A.Pote)' 외 두 곡을 박승기 성도(고등부찬양대 반주자)의 반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동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15일(화) 신임군종목사 수련회에서 개회설교와 특강을 한다. 17일(목) 예장 전국장로회 64개 노회 연합임원수련회에서 특강을 한다. 19일(토) 종교개혁500주년기념사업회 인선추천위원회를 소집한다.

■ 목사안수: 12-13다락방 박상운 집사의 장남 박영진 전도사, 한빛침례교회

■ 개업: 오치열 집사(11교구) 『우리소』 성북구 동선동 2가 3-6 Tel. 924-2981

■ 개인전: 최문주 집사(3교구) 『빛, 색 그리고 시간 이야기』 2011. 3. 9(수)-3. 14(월) 종로구 관훈동 188 인사아트센타 2층, Tel. 736-1020

■ 연주회: 신모란 성도(15교구, 할렐루야찬양대 솔로이스트, 청년1부) '한국 소극장 오페라 축제',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3월18일(금) 19:30

■ **주간 식당 봉사:** 이삭선교회(3.13) 도르가전도회(3.20)

■ **금주의 식사제공:** 7교구 김태정 김태진 김태석 성도 (모친 오영자 권사 생신 감사하며)

새 가 족 환 영 회

3월19일(토) 오후 4시30분, 801호

2011년 제1차 새가족환영회가 3월19일(토) 오후4시30분 801호에서 열린다. 2010년11월21일(주) 이후 등록한 새가족과 그 이전 등록한 분들 중에도 지난번 새가족 환영회에 참석하지 않은 새가족 모두를 초청한 가운데 열린다. 오후 4시30분까지 801호에 모여 찬양으로 준비한다. 서울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하나되고 잘 정착하여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기도한다.

학습 · 세례식 거행

서울교회 당회 주관으로 지난 3월9일 수요 1,2부 예배시 2011년 처음으로 학습 · 세례식이 있었다. 짝수달(격월) 3째주 수요 1,2부 예배시에 학습 · 세례식을 거행하고 있으나 이번 예식은 공군사관학교 세례식으로 연기되어 시행되었다. 본 예식은 서울교회 3대 목표중 하나인 "천국시민양성"의 가시적 열매임과 동시에 본인에게는 신앙성장의 기회가 되므로 교구와 다락방 및 각 교회학교에서는 학습 · 세례 대상자를 적극 추천하여 주기 바란다. 사전교육 및 신청절차는 새가족부 세례준비반(609호)에서 담당하고 있다.

금번 세례/개종/입교/학습/유아세례자는 다음과 같다.

· 세례자 : 김용운 노서연 박기태1 안순애 윤성지1 이득원 이현정6 임동영 계 8 명
· 입교자 : 공선진 김명현 김수경 신도빈 박 준 이용준3 이유빈 이지훈3 임진호 정윤재 정진영4 계 11 명
· 개종 : 박경희4 서영선1 유판례 계 3 명
· 학습자 : 강남규 길성진 김경순4 김윤상1 김현석 김혜진4 나영애 노두환 노샛별 박상기 박정민6 박희욱 방재환 송미선 안소연 양정훈1 유지성 윤용수 이강일 이상희3 이현영 이혜진6 전민호 전형호 정 솔 제명수 제연주 조선희1 최승욱1 허성경 홍석호 계 31 명
· 유아세례자 : 권주영 김민우5 윤주찬 이도현 계 4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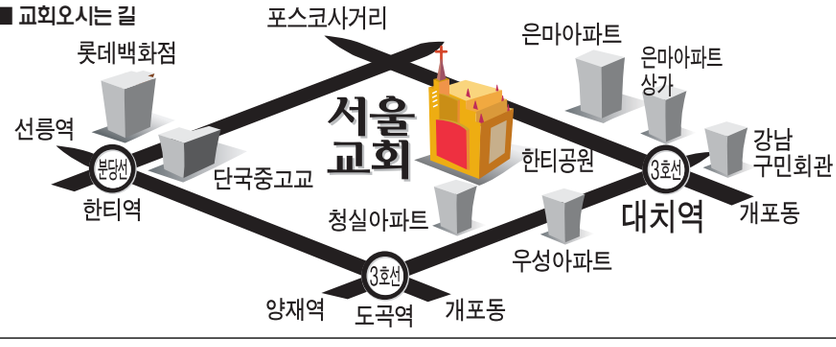
총 57 명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새가족들이 교회와 다락방에 잘 정착하여 열매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2. 새로워진 다락방 사역 훈련과 금요집회를 통해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 갈 수 있도록
3. 일본의 대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빠르게 복구되며 일본이 주께로 돌아오는 영적인 계기가 되도록
4. 우리나라에 공의가 강 같이 흐르게 하시며 복음화 된 통일조국 하루속히 이뤄지도록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주 일 예 배	Ⅰ부	오전 9시
	Ⅱ부	오전 11시 20분
	Ⅲ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영 어 예 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 요 예 배	Ⅰ부	오전 11시
	Ⅱ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2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 교회오시는 길